

21수능 9월 현대시

(가)

(가)

……**활자(活字)**는 반짝거리면서 **하늘 아래**에서
간간이
자유를 말하는데
나의 영(靈)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

벗이여

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
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
마음에 들지 않아라

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

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
담장의 푸른 페인트빛도
저 고요함도 이 **고요함**도

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
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
이 육된 교외에서는
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

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
간간이
자유를 말하는데
우스워라 나의 영(靈)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

-김수영, 「사령(死靈)」-

<자신의 상황을 마음에 들지 않아하는 시>

(나)

한강물 열고, 눈이 내린 날

㉠**강물에 불들린 배들을 구경하러 나갔다.**

㉡**훈련받나봐, 아니야 발등까지 딱딱하게 얼었다.**

우리는 강물 위에 서서 일렬로 늘어선 배들을

㉢**비웃느라 시시덕거렸다.**

㉣**한강물 흐르지 못해 눈이 덮은 날**

강물 위로 빙그르르, 빙그르르.

웃음을 참지 못해 나뉘굴며, 우리는

보았다.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불박힌 말들을.

언 강물과 언 하늘이 맞붙은 사이로

저어가지 못하는 배들이 나란히

날아가지 못하는 말들이 나란히

숨죽이고 있는 것을 비웃으며, 우리는

빙그르르. ㉤을 거울 몹시 춥고 얼음이 팡팡팡 열고.

-김혜순, 「한강물 열고, 눈이 내린 날」-

<강물에 얼어붙은 배 관찰하는 시>

1. (가)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① 시간적 표현을 열거하여, 시대에 대한 화자의 **인식 변화**를 드러낸다. (X)

② 대상에 대한 호칭을 전환하여,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**경의** **값**을 표현한다. (X) Context: 시의 중심은 화자/ 대상이 아니다.

③ **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**를 사용하여,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**대상의 움직임**을 표현한다. (X)

④ 물음의 형식으로 종결하여,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**개담음이 부정**되고 있음을 나타낸다. (O)
개담음이 부정: 인식변화(Context)를 전제 (표현을 Context 의미로 치환)

⑤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,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**부정적 정서**가 **심화**되는 과정을 드러낸다. (X)
부정적: 포괄적 진술(방어적선지)/ 심화: 서정표현 일반효과(방어적선지)

Cp1. 순서

1. 방어적선지 2. Context 3. Text

Cp2. 선지의 의미

-> Context 치환 多

Cp3. 방어적선지

-포괄적 진술

Cp4. 방어적선지

-서정표현 일반 효과 진술

2. ㉠~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① ㉠의 ‘불들린 배’는 강이 얼었을 때 볼 수 있는 구경거리를 **관** **심의 대상**으로 표현한 것으로, 이를 통해 시상 전개의 **과기**가 형성된다. (O) 서정갈래에서 표현함 = 관심

② ㉡의 ‘아니야’는 배가 훈련을 받고 있다는 추측을 부정하는 표현으로,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**배의 내부적 원인**에서 기인하고 있음이 이를 통해 드러난다. (X)

③ ㉢의 ‘시시덕거렸다’는 서로 모여 실없이 떠드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, 배가 질서정연하게 정렬된 모습에 대한 ‘우리’의 **냉소**가 이를 통해 드러난다. (O)

④ ㉣의 ‘흐르지 못해’는 강이 언 상황이 강물의 흐름을 막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, 강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는 **외부의 힘**이 이를 통해 **강조된다**. (O) 서정표현의 일반효과

⑤ ㉤의 ‘팡팡팡’은 강추위가 지속되는 현재의 상황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, 모든 것을 **얼어붙게 하는 현실의 상황**이 견고하다는 점이 이를 통해 **강조된다**. (O) 서정표현의 일반효과

Cp1. 방어적선지

-서정갈래 일반 진술

Cp2. 방어적선지

-서정표현 일반 효과 진술

Cp3. 선지 간 모순

“적극활용”

2번 Context: 내부적 요인 <-> 4.5번 Context: 외부의 힘 / -게 하는 현실

3. <보기>를 참고하여 (가), (나)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[3점]

“New Context”

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의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어서 자유가 억압되고, 그 사회 또한 경직된다. 이런 맥락에서 (가)와 (나)를 해석할 수 있다.

(가)는 활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어야 할 언어가 ‘활자’의 상태로만 존재한다고 표현함으로써 언어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주목한다.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위축된 의사소통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여, 경직된 사회에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한다. (나)는 자유롭게 쓰여야 할 언어를 ‘붙박힌 말’로 표현함으로써 개인의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을 비판한다. 이러한 상황에서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웃음이나 몸짓과 같은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보여준다.

답안
5 2 1

- ① (가)에서 ‘나의 영’에 대해 ‘우스위라’라고 자조한 것은 의사소통의 여지가 축소된 상황에서 자신의 참여만으로는 의사소통의 장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성찰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. (X)
능력부족은 성찰할 수 없음 / 보기:참여X 선지:참여O
- ② (나)에서 ‘우리’가 ‘언 강물’ 위에서 비웃는 모습이나 ‘빙그르르’ 뒹구는 장면은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모색함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. (O) New Context
- ③ (가)의 ‘하늘 아래’는 ‘고요함’이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, (나)의 ‘맞붙은 사이’는 ‘배’와 ‘말’이 ‘숨죽이고 있는’ 공간이라는 점에서,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경직된 사회를 엿볼 수 있군. (O) New Context
- ④ (가)에서 ‘자유를 말하’는 것이 ‘활자’로 한정된 것은 의사소통의 장이 위축된 상황을 나타내고, (나)에서 ‘말’이 ‘날아가지 못’한다는 것은 자유로워야 하는 언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군. (O) New Context
- ⑤ (가)에서 주변 세계를 ‘마음에 들지 않’아 하는 것은 의사소통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 것이고, (나)에서 강물이 얼어 ‘배’를 ‘저어가지 못’하는 상황은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환경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군. (O)
<->2번문제 2번선지 Context: 내부의 힘

Cp1. “New Context”

보기가 제 역할을 하는가?

Cp2. 선지 내 모순

Dog-sound -> 문장독해

Cp3. 보기 관점 이탈

“보기의 시선”

Cp4. 문제 간 선지 모순

“적극활용”